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조재현



초등학교 가기 전 놀이터가 없는 산동네 아이들은 오전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산에서 논다. 노는 것도 아이들 놀이기구 모단 산에서 유적 훈련하는 꼬마특공대 모습이다.

내가 살던 산동네를 내려오면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있고 대학교 담장은 철조망과 철사로 만든 가시덤불로 되어 있어 지금의 비무장지대 철조망 딱 그 모양이다.

오후 3~4시가 되면 대학교 운동장이 한산해지는 것과 동시에 산동네 꼬마특공대는 길이 잘난 철조망 루트로 넘어가 대학교 운동장을 점수한다. 그러다 일몰시간이 다가오면 순찰 도는 경비아저씨 호각을 불며 꼬마 특공대를 쫓아낸다. 특공대 중에 발 빠르기로 유명한 나는 거의 일적으로 철조망을 넘어 탈출한다.

그런데 가끔 달타는 게 익숙치 못한 아이는 자기 키보다 4~5배되는 철조망 가시덤불에 걸려 상처가 나고 울기도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때 달려오는 경비아저씨는 흑시라도 아이가 떨어질까 봐 "천천히 내려가! 조심해!" 소리를 지르지만 아이에게 그 소리는 자기를 격정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호통 치는 고향소리만 들릴 뿐이다. 당시엔 왜 그리 경비아저씨의 호각소리와 제복이 무서웠을까?

그 시대의 정서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그렇게 자랐었나보다. 그래도 대학교 경

산동네 꼬마 특공대

비아저씨는 우리를 쫓아내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를 꼭 붙잡아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배려한 꼬마특공대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나는 우리 특공대원들을 모아놓고 해화동에 위치한 해화유치원을 점수하자고 제안한다. 당시 유치원은 상위 5% 가정만 다녔을 때다. 담 너머로 살짝 보이는 아무도 없는 유치원 운동장의 놀이터는 그야말로 천국이였다. 조용히 들어가 주위를 살펴보고 놀이시설을 조심스럽게 하나둘씩 탐보며 맘껏 즐

긴다. 얼마나 지났을까? 벌써 어둠이 운동장에 내린다.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시야에 경비로 보이는 아저씨 두 명이 잦걸음으로 뛰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치사하게 호각도 불지 않고, 도망치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달려 담벼락에 일착으로 올라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뒷덜미를 잡아 땅바닥에 패대기를 친다. 대학교 운동장 경비 아저씨완 완전 다르다. 우리 세 명은 무릎을 꿇고 앉아 경비아저씨에게 머리를 쥐어 박히며 거친 말투로 우리를 혼을 낸다.

얼마 전 담 넘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간

연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있고, 특히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버림받거나 내팽개쳐진 불행한 처지의 아이들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다가오는 5월에도 여기 저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어디에도 참여할 수 없는 소외된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를 위한 5월이 오히려 가장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도 4월30일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전문 예술축제를 위해 세계 최고의 그림책(동화) 작가 앤서니 브라운 원화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 교육과 체험행사 등 어린이 친국을 만들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돈이 없어도 광장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어려운 어린이를 배려한 무료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 다치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마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집안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서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4대강 지류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정부가 4대강 지류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 사업비 가운데 자치단체 부담액이 6~7조 원으로 추정돼 지방재정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지류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까지 안겨 준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에 따르면 2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비 중 40%가량인 6~7조 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럴 경우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4대강 사업으로 거의 바닥난 지방재정에 또다시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그래도 지류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전액 국비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류사업의 무리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지난 15일 사

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무기연기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물론, 전국의 지류가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홍수 피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하기는 하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류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분류보다 지류 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결국 분류 사업만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자 지류 사업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 절감을 한다며 호남고속철 일부 구간의 지속철화를 획책하고 있다. 그대 놓고 국민과 지자체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에만 천문학적인 현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지류사업이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수학급에 무자격 교사 판치고 있다니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20곳 이상에서 무자격 교사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동·서부교육청 관내 8개교는 학교내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음에도 일반교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내에는 현재 초등학교 116개교에,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141학급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교원은 115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26명은 무자격자(미진공자)라고 한다.

특히 시 교육청은 대학원(특수) 졸업 등 추가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무자격 교사를 배치해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학생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무자격 교사가 장애학생을 지도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이 그에 걸맞은 교육을 받아 우리 사회에 적응토록 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다. 특수학급에 무자격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당초 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가 특수학급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가산점 등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데 이런 변명도 어디에 있는가. 이는 시 교육청의 인사가 교육 수요자인 장애학생을 배려하지 않고 교사 희망 등 교사 중심의 인사를 했다고 시인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모든 교육정책이 교사가 아닌, 학생 중심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시 교육청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특수학급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게 현 재로선 급선무다.

無等鼓

개인보다 못한 정부의 독도 홍보 행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일본 대지진 돌기 성금으로 약 560억 원이 걷힌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판의 크기는 항문관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한다.

항문의 해부학적, 기능적 상태를 파악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수술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개인별 맞춤형 치질 수술'이다.

그러므로 단지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수술 보다는 경항문초음파, 항문 압축정기, 항문관측정기 등을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치질 수술'이 더 신뢰할 만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항문병 역시 예방이 중요하다. 건강 한 항문을 위해서는 항문 혈관을 확장시키는 자세나 생활 태도는 피해야하며 갑자, 고무마, 채소, 해조류 등 식이섬유 섭취가 많은 식생활을 권한다.

하루에 2차례 정도의 좌욕, 특히 배변 후 좌욕은 필수다. 하지만 이미 치질이 생겨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수술 후 통증이나 재발, 항문 기능의 이상이 걱정돼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치질 수술'을 권한다.

<위대항외과 원장>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문화홍보원은 우리나라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해외문화홍보원의 올 전체 예산은 620억9500만 원인 데 독도 관련 예산은 이 중 달랑 0.018% 밖에 안되는 셈이다. 게다가 해외문화홍보원의 독도 홍보 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09년 독도레이서의 행사에 1134만 원, 반크 공모전 홍보에 3600만 원이 지원됐다. 합쳐봐야 4734만 원 밖에 안 된다. 다음해인 2010년에는 주한 외국인 대학생 볼로냐의 동해 탐방 행사에 2560만 원, 동해연구회의 동해명칭 홍보에 1500만 원 등 4060만 원이 지원됐다.

독도 홍보 업무를 하는 또 다른 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해외 홍보 예산도 6200만 원에 불과했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독도 홍보 예산이 이 정도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미처 못한 행태가 심히 불쾌하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

개인보다 못한 정부



옴부즈맨 칼럼

조미옥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창간을 기념하면서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신문인들이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정했다. 신문의 날은 지났지만 날마다 신문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올해로 55회를 맞는 신문의 날 표어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첫째, 정확한 소식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세계의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콩을 광아에 심으면 콩나물이 되고, 콩을 온실에 심으면 콩나물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교육은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언론의 보도 형태는 교육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일보의 '교육을 생각 한다'는 테마 칼럼이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없어지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 행해지고 있는 집중과목이수제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지만 실상 부모들은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성교육 포기 집중과목 이수제'라는 광주일보 보도는 다른

정확한 소식, 정직한 소리, 정다운 신문

정확하지 못한 기사가 가져다주는 폐해는 생각이상으로 심각하다. 신문이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사회를 볼 수 있다.

둘째, 정직한 소리이다. 일어난 사실들의 문제점을 논평, 즉 비판하는 것이다. 무조건 비판이 아닌 미러지향적 사회비판이다.

이따금 견해와 주장이 자신과 다르다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틀린 사람'으로 단정해 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다. 양심에 따라서 정직한 소리를 내야 한다.

셋째, 정다운 신문이다. 기사내용과 용어 선정에 있어서 나쁜 기사 보다 좋은 기사나 용어가 많이 실려야 한다.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정치면 기사가 1면을 거의 차지하는 것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행복지수를 올려야 한다.

최근 교육에 관한 보도를 보면 교육계의 비리와 KAIST의 잇단 자살 문제로 암울하다. 우리 지역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성적 올리는 문제에만 열을 올리지 정작 학교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교육 문제는 쉽게 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는 단비 같은 보도였다. 교육은 누구나 일등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하는 소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미래의 독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관심 영역을 넓히고 참여 기회도 늘려야 한다.

보는 것과 읽는 것 중 더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은 어느 것일까? 과학적 실험에 의해 읽는 것이 훨씬 잔상이 오래 남는다고 한다. 읽는 것 보다는 느낄 수 있도록, 느끼는 것보다는 깨달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다양한 필진들의 기사로 중앙지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생생한 정보가 채워져야 할 것이다.

미래는 재미있게 놀 공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젊은이들보다는 재미있게 살 공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젊은이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여수 영취산에 갔을 때 일이다. 지천에 피어 있는 진달래에 '꽃들썩' 놀란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 왔는데 사진보다 더 멋지고 환호를 지르면서 오길 즐겼다고 했다. 신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있었다. 진심이 통했다. 신문에서 본 영취산 사진 한 장으로도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광주일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면서 희망인 것이다. 정확한 소식, 정직한 소리, 정다운 신문으로 지역의 대표 주자 광주일보로 거듭나길 바란다.

<나주 봉황중학교 교사>

의료 칼럼

조동윤



어느 잔치 집에 눈, 코, 귀, 향문이 초 대되었는데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논쟁이 벌어졌다.

눈은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겠는가?" 코는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겠는가?" 귀는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서로 자기 자랑만 하느라고 옆에 향문이 있는 줄도 모르고 떠들어댔다.

그러자 화가 난 향문이 문을 꼭 닫고 말했다. 파티가 무르익어 몇 시간이 지나 배가 살살 틀어 오르기 시작했다.

해결하고 있다. 이상적인 치핵절제술은 수술 후 통증과 재발이 없어야하며 향문 기능이 보존되는 수술 방법이어야 한다. 수술 후 통증과 재발을 최소화하고 향문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향문의 기능적, 해부학적 상태를 파악해 가장 적합한 수술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향문 역시 그 형태나 기능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모든 치핵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수술 방법은 있을 수 없다. 항문 괄약근의 해부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항문초음파와 검사가 이뤄지며, 항

문 괄약근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는 항문압축정기를 사용하며, 항문 판의 크기는 항문관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한다.

항문의 해부학적, 기능적 상태를 파악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수술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개인별 맞춤형 치질 수술'이다.

그러므로 단지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수술 보다는 경항문초음파, 항문 압축정기, 항문관측정기 등을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치질 수술'이 더 신뢰할 만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항문병 역시 예방이 중요하다. 건강 한 항문을 위해서는 항문 혈관을 확장시키는 자세나 생활 태도는 피해야하며 갑자, 고무마, 채소, 해조류 등 식이섬유 섭취가 많은 식생활을 권한다.

하루에 2차례 정도의 좌욕, 특히 배변 후 좌욕은 필수다. 하지만 이미 치질이 생겨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수술 후 통증이나 재발, 항문 기능의 이상이 걱정돼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치질 수술'을 권한다.

<위대항외과 원장>

맞춤형 치질 수술

하지만 향문은 결코 문을 열지 않고 꼭 다물고만 있었다. 몇 시간이 더 지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드디어 눈·코·귀는 모두 한목소리로 외쳤다. "향문이여! 문을 여소서!!"

향문에 흔히 발생하는 치핵, 치열, 치루를 통칭해서 치질이라 부르며 이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핵을 통상 치질이라 한다. 치핵의 초기에는 증상 치료를 한다.

증상 치료는 내치핵에서의 출혈을 가라앉히거나 외치핵에서 생긴 혈전과 이로 인한 부종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치료이며 내복약과 좌약, 그리고 좌욕 등이 사용된다. 하지만 내복약이나 좌약 혹은 좌욕만으로는 내치핵이나 외치핵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으며 치핵이 심해진 경우 근치 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치핵절제술이다.

과거에는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재발도 많고 잘못되면 변이 새는 현상도 있어서 수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항문 수술법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술대학 학비 너무 비싸 가계 부담 커 현실화 절실

동생이 모 사립 예술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다. 그런데 예술대학의 학비가 너무 비싸 가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술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실습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등록금과 별개로 학기중에 적게는 몇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재료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예과는 가마비, 무용과는 레슨비 실제 추가 부담하고 어떤 경우는 천만 원에 육박하는 작품비가 제출한다고 한다.

학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보니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술대학은 등록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해줄기 바란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금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촌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